

#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의미와 역할

안 지 현<sup>1</sup> · 임 인 석<sup>2\*</sup>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sup>1</sup>내과학교실, <sup>2</sup>소아청소년과학교실

## The significant role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http://health.mw.go.kr>

Jihyun Ahn, MD<sup>1</sup> · In-Seok Lim, MD<sup>2\*</sup>

Departments of <sup>1</sup>Internal Medicine and <sup>2</sup>Pediatrics,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In-Seok Lim, E-mail: [inseok@cau.ac.kr](mailto:inseok@cau.ac.kr)

Received May 21, 2011 · Accepted June 5, 2011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http://health.mw.go.kr>), a collaborative project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was officially launched in January 2011. In the modern society,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have been flooded with health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television, and radio broadcasting.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have expanded their work in several directions, including a monitoring project to correct wrong health information that is commonly used. Nevertheless, they are confronted with the fundamental problem that they are unable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production and diffusion of health information in modern society. This initiative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s significant in that anyone with internet access can easily find proven health information. Unlike existing health information,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is structured to help improve understanding by presenting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cartoons, pictures, photos, and videos, as compared to simple documents or texts. In addition, it is constructed with a feedback system so that the consumer of the health information can directly and easily access specific content. Furthermore,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continues to strive to provide practical contents with mobile services like smart phone applications. We expect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by reducing unnecessary medical expenditures, and providing quality health information to society.

**Keywords:** Health information; Internet; Consumer

## 서 론

의료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비  
 추어 크게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간 커뮤니케

이션(환자-의료인 또는 의료인-의료인 간), 조직 커뮤니케이  
 션(병원 내, 의과대학 내 등),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대중  
 매체와 언론)이 그것이다. 여기에 두 분야를 덧붙이면 공중  
 보건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건강정보 커뮤니케이션을 들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수 있다. 특히 소비자 건강정보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일반대중이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얻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신문이나 잡지보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검증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2011년 1월 31일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을 공식 오픈하였다[1]. 본 특별기고에서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인터넷 건강정보의 활용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한 201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82.5%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2001년 12월까지의 조사대상을 만 7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인터넷 이용자층이 확대되면서 2002년 6월 조사부터는 취학 가능 연령인 만 6세 이상으로, 다시 2006년 12월 조사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0년 5월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77.8% (3천 7백만 명)로 1년 사이 0.6%(43만 명) 증가하였다. 만 3-5세 사이 소아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84만 명이며 인터넷 이용률은 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자료 및 정보 획득(91.6%), 음악, 게임 등 여가활동(89.1%),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88.4%)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텔레비전(89.3%)보다 인터넷(92.4%)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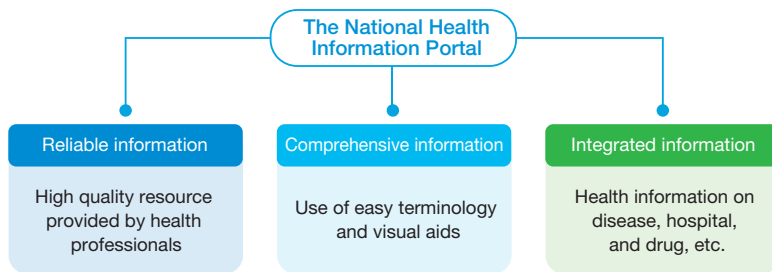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가 차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건강정보 웹 사이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5,110개로 2004년에 비해 상업 사이트는 감소한 반면(2,968개, 58.1%), 개인 사이트는 3배 증가(1,026개, 20.1%)하였으며, 제공 서비스는

건강정보(28.6%), 온라인 건강상담(23.5%), 진료예약(15.4%)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상업기관의 사이트는 단순 건강정보보다 질병정보의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신뢰할만한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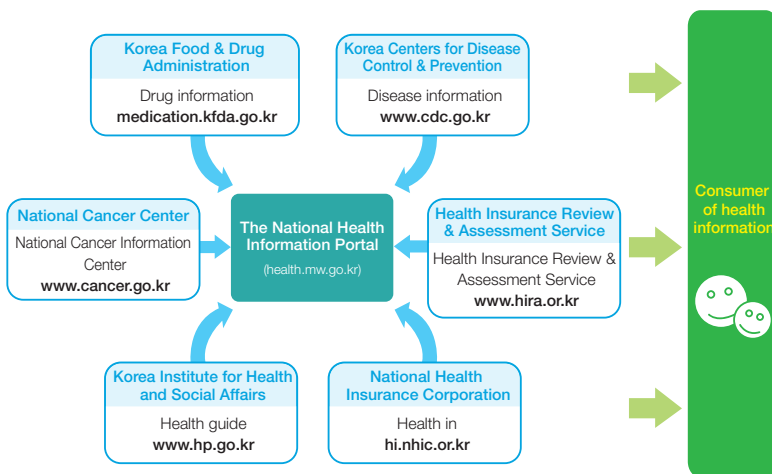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http://hi.nhic.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질병관리본부(<http://cdc.go.kr>), 국가암정보센터(<http://cancer.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hira.or.kr>),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정보(<http://medication,kfda.go.kr>) 등에 건강정보가 소개되었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각 기관의 특성에 걸맞는 양질의 건강정보가 실려 있으나 대부분 텍스트 위주이거나 특정 주제에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6월 13일 NHN 네이버와 의료상담 및 의학정보 콘텐츠 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 21일부터 네이버 지식iN에 답변 의사를 통한 의학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NHN은 일부 병원과 추가 제휴를 통해 질병 및 의학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별도 영역에서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전문검색서비스'도 운영하였다. 네이버의 지식iN에서는 답변 참여 의사의 이름과 소속 분야 등을 함께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 의사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지식iN은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등과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소비자 건강정보사업으로는 미국의 Medline-Plus, 캐나다의 Canadian Health Service, 영국의 Direct Online, 유럽의 Health-EU, 호주의 HealthInsit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MedlinePlus (<http://medlineplus.gov>)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 국립보건원이 제작한 건강정보 무료 웹사이트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1990년대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들이 건강정보의 중요한 소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1998년 10월 MedlinePlus를 출범하여 환자와 가족을 위해 최신의



**Figure 1.** The core value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1].



**Figure 2.** The collaborative net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1].

신뢰할 만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로 된 22가지의 건강주제로 시작하여 현재 900여 개의 건강주제로 확대하였으며, 스페인어 등 40여 언어로 된 건강정보 링크를 갖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http://m.medlineplus.gov>)도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며, NIH Senior Health는 시력이 나쁜 노인을 위해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dlinePlus는 미국 국립보건원, 정부 산하기관, 관련 단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며, Reuters Health Information, HealthDay와 같이 언론에 소개된 의학 관련 뉴스와 처방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임상시험과 연구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현재 매년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MedlinePlus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 만족지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4].

우,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절박성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 대상 주제목록을 최종 확정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개요, 원인/위험요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조기검진, 대상별 맞춤정보, 기타 정보의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후 주제를 확대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의 만화 캐릭터와 사실적 표현에 가까운 삽화와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자료를 대폭 추가하여 2011년 1월 31일 국가건강정보포털이 공식 오픈하였다[1].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한 검증된 정보, 알기쉬운 정보, 통합적 정보의 제공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Figure 1).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국내의 각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어 온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을 통합, 연계하여 한 곳에서 필요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채널을 일원화하였다(Figure 2). 국민건강

##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 개설

2007년 1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은 Medline-Plus의 건강주제 가운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을 국내 연구팀이 한국 실정에 맞게 한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하여 우선 100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상담 코너 조회 수, 인구 10만 명당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8-2005년의 국내 만성질환목록 비교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 다빈도 상병 진료 실의원 통계를 추가하여 정보화 우선 대상 목록을 선정하였다.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는 정보의 난이도와 수요도, 상업성 정보나 상반되는 정보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자료가 부족한 경우, 정보의 난해성으로 인해 정리되고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

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소개마당, 건강정보 마당, 영양기관정보마당, 알림마당, 참여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개마당에서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소개와 함께 포털 이용안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정보마당에서는 주제/신체별 검색, 사전식 검색, 증상별 검색과 함께 건강정보 관련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기관 정보마당에서는 영양기관 현황정보,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알림마당에서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건 의료뉴스, 영양기관소식, 보건이벤트, 보건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마당에서는 상담 FAQ, 1:1 고객상담, 건강정보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정보의 확산과 소비라는 인터넷의 특성에 걸맞게 건강담기 기능을 통해 건강정보를 자유자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양질의 정보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각 건강주제마다 소비자가 직접 해당 콘텐츠에 대해 용이성, 유익성, 구체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수정, 보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 론

현대사회 인터넷의 이용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인구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불명확한 건강정보의 범람은 일반인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검증된 양질의 건

강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학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1년 1월 31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공식 오픈하였다.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정보 텍스트와 함께 만화 캐릭터와 삽화,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자료를 담고 있다. 또한 건강담기 기능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게시가 가능하게 하여 양질의 정보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건강정보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이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건강주제를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방식과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용어:** 건강정보; 인터넷; 소비자

## REFERENCES

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Internet]. Seoul: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ited 2011 Jan 31]. Available from: <http://health.mw.go.kr>.
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0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Seoul: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0.
3. Song TM. Health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Health Welf Policy Forum 2006;113:61-67.
4. Smalligan RD, Campbell EO, Ismail HM. Patient experiences with MedlinePlus.gov: a survey of internal medicine patients. J Investig Med 2008;56:1019-1022.



##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올해 들어 공식 오픈한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특별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논문에서 밝힌 대로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건강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 148개의 전문학회가 참여하여 검증된 건강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설치하고 이를 소개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번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만화,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고, 건강정보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의 용이성, 유익성, 구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특징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콘텐츠의 개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보다 향상된 포털사이트로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번 논문을 통하여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오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편집위원회]